



강기정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특별시장 경선후보가 16일 순천시의회에서 '동부권 100만 도시를 위한 10가지 약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강기정 경선후보측 제공

“의대는 순천, 목포엔 빅4 병원” 공약 놓고 날선 공방

“효율적 양성 위해 통합” 약속에 목포 정치권 강력 반발

조대 전남광주특별시장 경선 후보인 강기정 광주시장의 전남 의과대학 관련 발언을 두고 정치권에서 날 선 공방이 일고 있다.

17일 지역 정·관가에 따르면 강 시장은 전남 순천시의회에서 열린 '동부권 100만 도시를 위한 10가지 약속' 발표회에서 “100명 정원의 의대를 순천으로 통합하고, 부속대학병원도 이 곳에 세우겠다”고 밝혔다.

또 “목포에는 순천대·목포대 통합대학 본부와 함께 4차 병원을 유치해 부족한 의료서비스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4차 병원은 공식 체계인 3차(상급종합) 병원을 넘어, 특정 분야에서 국가 전체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거나 연구 중심 기

능을 수행하는 곳을 일컫는 표현으로, 이른바 '빅4' 병원(서울대, 아산, 삼성, 세브란스) 또는 빅5(성모 포함)로 불리는 조거대 민간병원이나 국가특수목적 병원, 전문특화 병원 등이 여기에 속한다.

강 시장은 그러면서 “의대 정원 배분과 부속병원 위치 논쟁에 마침표를 찍겠다”며 “당장의 논란을 피하려고 100명 규모의 의대와 병원을 절편으로 쪼개면 기초 의학교육을 확보하는 일도, 체계적인 의료인력을 양성하는 일도, 의대와 수련병원 규모를 유지하는 일도 모두 어려워진다”고 밝혔다.

이에 목포를 지역구로 둔 김일원이 의원이 페이스북을 통해 강하게 반발하며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목포시민과 도민들이 35년

넘은 세월 동안 의대 설립을 위해 온 힘을 기울여 왔다”며 “수많은 갈등과 토론을 거쳐 목포대, 순천대가 대학 통합 의지를 보이며 의대 설립의 물꼬를 텄고, 이제 겨우 출발선에 서 있는데 강 시장의 발언은 논쟁의 마침표가 아니라 새로운 갈등의 촉발”이라고 비판했다.

또 “선거 이득을 위해 목포 의대와 전남권 의대 설립의 시계를 다시 과거로 돌리려는 유치한 발상을 즉각 철회하고 목포 시민과 도민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갈라치기’ ‘막가파식 제안’이라는 원색적 비판도 더했다.

강성희 민주당 목포시장 예비후보는 “순천 의대 일원화는 전남을 쪼개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말한 뒤 “교육부는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실사를 통해 전남 국

립 의대와 대학병원을 목포대와 옥암 의대 부지로 조속히 결정하라”고 요청했다.

논란이 커지자 강 시장은 하루 만에 해명에 나섰다.

강 시장은 17일 광주시의회에서 열린 공약발표 회견 말미 질의응답을 통해 “대통령과 교육부가 수 차례 의대 후보지를 정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아직까지 정하지 못하고 있다. 특별시 청사 논란처럼 의대 역시 소재지 문제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이제는 결정할 것은 결정하고 가야 한다는 생각이 말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요구가 있다고 해서 50명 50명 쪼개는 비현실적인 방식으로 의대를 설치할 순 없지 않느냐”며 “정치는 결단해야 될 때 결단하고 판단할 때 판단해야 된다”며 “의대는 순천, 목포엔 빅4급 병원 유치”를 다시 한 번 약속했다.

뉴스

“뭉쳐야 산다” 6월 지선 단일화 급물살

학연·혈연 넘어선 전략적 합종연횡 가속화

결선투표 겨냥한 막판 ‘세 걸집’ 총력전

더불어민주당 6월 지방선거 경선이 본격화되면서 합종연횡을 통한 후보 단일화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조대 통합특별시장과 기초단체장 경선을 중심으로 세력 분화와 걸집이 가속화되고 있고 교육계 등 주요 직능별 지지세 확산에도 사활을 걸고 있다.

17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장 경선의 경우 당초 8명의 후보 중 ‘4선 중진’ 이개호 의원과 호남발전특별위원회 상임부위원장인 이병훈 전 국회의원 등 2명이 경선 불참과 중도 사퇴하면서 6파전을 압축했다.

있다 변수로 선거구도는 요동치고 있다. 두 후보의 급변점으로 지지층 향배에 관심이 쏠린 가운데 예비경선, 5인 분경선, 2인 결선투표로 이어질 경우 후보 간 합종연횡이 선거판을 뒤 흔들 최대 트리거로 부상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함께 가자”며 후보간 ‘러브콜’이 빚비치는 가운데 가운데 정치적 성향과 진영, 삶의 궤적 등을 토대로 연대 움직임도 가시화되고 있다.

김영록 예비후보는 조만간 도시철도 상무역 인근 선거사무소를 이병훈 예비후보 선거사무실이 있던 유스퀘어 버스터미널 맞은편 건물 2층으로 옮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캠프 관계자는 “이전을 고민 중인 것은 맞지만, 아직 계약은 안된 상태”라고 말했다.

김-이 예비후보는 서석초·서중·광주주요도로 이어지는 ‘트리플 동문’이고, 행정고시 출신으로 고위관직을 두루 거친 ‘행정 전문가’라는 공통점도 지녔다.

김 후보 선거사무소는 공교롭게도 경선경쟁자인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선거사무소와 같은 건물 7층과 5층을 각각 사용하는 방식이어서 ‘한 지붕, 두 캠프’ ‘불편한 동거’라는 말이 나왔다.

강기정 현 광주시장과 전남 기반 신정훈 후보는 “만약 손을 잡는다면”이라는 가정법 질의에 같은 신을, 신은 강을 택했다. 82학번 동기로, 강 시장은 전남대, 신 후보는 고려대에서 학생운동을 이끌었다.

강 시장은 “통합 동반자인 김영록 전남지사 손을 잡아야 하지만 그러기엔 너무나 아쉬운 사람이 있는데 신정훈 의원이요. 대학 시절부터 생각이 모든 것이 똑같은 착공이었다. 둘 중에 누구 잡아야 하면 ‘엄마, 아빠 고르라’는 정도로 고통스러운 선택”이라고 말했다.

신 후보는 “살아온 삶과 생각의 스펙트럼 등을 따져 보면 강 시장과 가장 많이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겠느냐”며 “광주와 전남이 함께 잘 사는 방법을 모색한다면 역할 분담이 중요하다”고 강 시장과의 연대 가능성에 무게중심을 뒀다. 신 후보는 앞서, 친명(친이제명)계 인사인 문인 광주 북구청장과도 전략적 연대에 의기투합한 바 있다.

광주 민형배 의원과 전남 동부권 유일주자인 주철현 후보와의 연대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민 의원은 해남 출신으로 목포고, 주 의원은 여수 출신으로 여수고를 나왔고, 나란히 기초단체장 출신 재선 의원이고, 국회의원 사무실도 이웃사촌이다. 검찰 개혁과 자치 분권에서 결을 같이 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2면에 계속)

기동취재부

건물위생관리사 1급
환경관리전문가 1급

유한드론솔루션

건물의 외벽, 외부 유리창 등 청소는 선택이 아닌 필수!
건물 수명을 연장하고 에너지 효율과 가치를 지키는 최적의 기술 투자입니다.

- 1. 건물의 외벽은 건물의 얼굴이자 방어막입니다.
- 2. 미세먼지, 매연, 산성 오염물은 빗물로 제거되지 않고, 외장재에 달라붙어 변색·부식·균열·누수를 유발합니다.
- 3. 오염 방치를 그대로 두면 단열 성능 저하와 유지보수 비용 증가로 이어집니다.
- 4. 건물 이미지와 자산가치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 5. 정기적인 외벽청소는 선택이 아닌 필수!

유한드론솔루션
YUHAN DRONE SOLUTION

유한드론솔루션
YUHAN DRONE SOLUTION

서비스 분야 및 장점

- 고층건물 외벽, 유리창 청소**
 - 대상 : 아파트(준공중/관리, 유지보수 등), 오피스빌, 빌딩, 호텔, 병원, 대형거래 외부
 - 로프, 비계 설치 없이 간단하게 즉시 세척 가능
 - 인명사고 위험 요소 완전 제거(중대재해 관련 안전에 최적화된 방법)
 - 상황에 따라 고압, 저압 분사로 균일하고 깔끔한 세척
 - 친환경 세정제로 오염·변색 최소화, 효과적인 건물 유지관리 및 보수 최적화
- 유리창 드론 청소**
 - 대상 : 오피스, 대형상가, 병원, 공공건물 등 건물 외부
 - 저압 린스(퓨어워터) 분사로 유리 손상 방지
 - 미세 오염·먼지 제거, 투명도 향상
 - 카메라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품질 관리
 - 신속 시공으로 영업 중단 최소화
- 발전소·설비 청소**
 - 대상 : 태양광, 수력, 화력, 냉각탑, 변전소 등
 - 비접촉 방식으로 설비 손상 위험 '0'
 - 드론 자동비행으로 균일한 세척 품질
 - 발전 효율 연평균 5~15% 향상 효과
 - 설비 가동 중에도 세척 가능
- 공장 외벽 청소**
 - 대상 : 산업단지, 물류센터, 제조공장, 식품공장 등
 - 기름때, 분진, 오염을 완전 제거
 - 광범위한 벽면도 단시간 내 시공
 - 도장면 손상 없는 비접촉 세척
 - 고소장비 비용 절감
- 태양광 패널 청소**
 - 대상 : 옥상형, 산지형, 발전소형 태양광 설비
 - 오염 제거로 발전량 10~20% 향상(지역환경·오염도에 따라 차이 있음)
 - 당사의 독창적인 퓨어 워터를 사용하여 물자국이 전혀 남지 않음
 - (※ 지하수 사용 시 석회, 미네랄 등으로 물자국 남음)
 - 표면 손상 없는 저압 미세분사 방식
 - 드론 촬영으로 점검 및 관리 데이터 제공
 - (태양광 100kW 당 연 평균 최소 약 150만원~최대 700만원 발전수익실현 가능)

시공 전후 사진

정소 전	정소 후	정소 전	정소 후	정소 전	정소 후
정소 전	정소 후	정소 전	정소 후	정소 전	정소 후

문의 0507-1491-1677

광주광역시 북구 문화소통로180, 1층 101호

유한드론솔루션

yuhan_drone1@naver.com yuhandrone_solution